

“아직도 배고프다”... ‘독주’ 현대건설, 하반기 수주 정조준

노량진·흑석 뉴타운 수주전 예고
노량진 4구역은 현대건설만 입찰

부산 문현1구역·대연8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돌입

서울 한남3구역과 흥제3구역 시공권을 가져가면서 명실상부 도시정비업계 수주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하반기 수주전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대규모 수주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노량진뉴타운의 알짜단지인 노량진4구역에서는 현대건설만 입찰해 유찰된 상황이지만, 2차 입찰공고에서도 다른 건설사가 나서지 않을 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노량진4구역 재개발은 노량진동 227-121 일대 4만512.5㎡에 건폐율 22.8%, 용적률 247.4%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0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이 입찰공고를 통해 밝힌 예정된 총공사비는 1988억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5200만원으로 알려졌다.

흑석뉴타운에서는 흑석11구역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특별건축지역으로 결정돼 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을 통해 흑석11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 총 1509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흑석9구역에서는 새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흑석9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롯데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시

공사 선정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11월에는 최종 시공사를 뽑을 계획이다. 흑석9구역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흑석동 90일대(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는 4400억원 규모다.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총 2232가구)과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총 3540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1476가구) 등 대형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주요 먹거리였던 해외수주 발주가 막히자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사업 수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분양수익이 줄어 더 많은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량진4구역의 경우 한 번 입찰을 넣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흥제3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누적 수주액 3조4450억원을 돌파하면서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켰다. 흥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2만7271㎡ 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63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686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또 경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를 맡았다. 공사금액은 1조 7378억원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 실시간 해외지수 시세 업계 최초 무료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해외지수 시세를 무료로 실시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면 누구나 미래에셋대우 대표 거래 매체인 m.Globa1, 카이로스, m.Stock을 통해 다우존스 산업, 나스닥 종합, 스탠드앤드푸어스(S&P)500 등 미국지수 3개와恒生/차이나기업(H), 니케이 225, TOPIX 등 아시아지수 4개 등 총 7개의 중요 해외지수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객님들의 해외주식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대표 해외지수들의 실시간 시세를 모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주식 투자고객들이 국내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투자 정보 서비스의 한글화다. 거래 빈도가 높은 약 2000여 개 해외주식의 리서치 자료를 한글로 제공하고 있으며 로이터와 제휴하여 해외뉴스도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다. ETF의 경우 국내 증권사 최초로 주요 10개국(미국, 중국, 홍콩, 한국 등)에 상장된 3700개 가량 상장지수펀드(ETF) 정보를 한글로 서비스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한국파마, 코스닥시장 상장 노크

증권신고서 제출, 324.3만주 공모
22~23일 수요예측 29~30일 청약



의약품 전문 제조사 한국파마가 지난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한국파마의 총공모주식 수는 324만 3000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6500원에서 8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210억원에서 275억원이다.

오는 22~23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9~30일 일반 공모 청

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시기는 8월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지난 1974년 설립돼 1985년 법인 전환한 한국파마는 정신신경, 소화기, 순환기 등 전문의약품(ETC) 생산에 주력해왔다. 현재 회사의 전문의약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86.1%에 해당하며 특화 제품과의 연계를 통한 처방 시장 점유율 증대와 꾸준한 신제품

개발 중이다.

향후 회사는 점점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국내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과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 치매 인구 증가 현황을 기반으로 정신신경계 의약품에 집중해 중장기 성장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전문의약품 분야 외 일반의약품(OT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파마의 지난 1분기 실적은 매출

액 166억700만원, 영업이익 11억 8600만원, 당기순이익 7억 42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실적은 매출액 661억 3600만원, 영업이익 72억 3700만원, 당기순이익 55억 28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9.3%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7.3%, 44.4%가 증가한 수치다.

박은희 한국파마 대표이사는 “한국파마는 설립 이래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왔다”며 “올해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KB증권, 아마존 등 美 IT기업 목표주가 제시

현지 증권사와 리서치 협업, 분석

KB증권은 1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4개 미국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해 투자권고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KB증권은 급격히 늘어난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종목에 대한 투자포인트 분석, 수익 추정, 밸류에이션(가치)을 바탕으로 KB증권의 자체적인 투자권고와 목표주가가 제시되는 본격적인 해외기업 조사분석 자료를 개시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29일 기준 아마존(AMZN)에 대해 투자권 매수(Buy)와 목표주가 3450달러를 제시했다. 아마존은 강력한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성장보다 빠른 온라인 유통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라는 분명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전망했다.

KB증권은 아마존을 시작으로 30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에 대한 분석자료를 이어서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IT외의 섹터로도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해외 종목 분석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한 회사소개나 해외 자료의 인용 차원을 넘어서 KB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 역량과 미국 현지 증권사의 정보 접근성, 신뢰도 등이 결합된 심층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투자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상세 문의를 KB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본격분양 나서

쌍용건설, 이달 초 견본주택 오픈
6·17 대책제외 ‘비규제지역’ 주목

쌍용건설은 7월 초, 서울 강남 생활권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는 지하 3층~지상 19층 15개동 총 873가구 규모로, 이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일반분양)는 ▲59㎡ 180가구(18가구) ▲73㎡ 310가구(62가구) ▲84㎡ 378가구(62가구) ▲97㎡ 5가구(5가구)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지역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성남~장호원간도로 쌍용JC와 가까이 위치해 강남까지 30분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조감도. /쌍용건설

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경강선인 경기 광주역과 초월역이 가까워 판교역까지 약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 30분 생활권’에 속한다.

교통호재도 많다. 인근에는 지난 2016년 개통된 판교~여주 경강선 이후 강남과 직결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키움증권

비대면 美주식 첫거래 40달러 드림 이벤트

키움증권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비대면 계좌 미국주식 첫 거래 고객 및 미국주식 3개월 휴면고객(7월 1일 기준)에게 40달러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키움에선 미국주식 살 때 40달러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40달러 이벤트는 신청만 하면 바로 계좌에 지급되는 40달러로 고객의 미국주식 거래를 지원해 준다. 입금된 4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미국주식을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던 고객들에게 부담없는 체험 기회를 준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저변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고객의 글로벌 시장 파악을 위한 해외주식 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